

광주FC 허을 3경기 연속골 도전한다

내일 광주서 FC안양과 격돌
올 시즌 유효슈팅 6개 4골 성공
무패행진·전 구단 상대 승 기대

광주FC 공격수 허을이 3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최근 12경기 무패행진을 내달린 광주는 11일 오후 6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 안양과 하나원큐 K리그2 2022 20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허을은 지난 라운드 충남 아산과의 홈경기에서 헤이스와 함께 맹활약을 펼쳐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11개팀중 가장 먼저 승점 40점 고지를 넘어선 광주FC는 K리그2 홈 최다연승(9연

승)이라는 새 역사를 기록, 1위(13승2무2패·승점 41)팀다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중심엔 허을과 헤이스가 있다.

올 시즌 4골 3도움을 기록 중인 장신 공격수 허을은 지난 18라운드 부산전 이후 2경기 연속 득점으로 필필 날았다.

허을은 지난 4월18일 안양과의 첫 맞대결에서 선발 출장해 70분간 뛰었으나, 슈팅 1개 그치며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발끝이 매섭다.

허을은 19라운드 충남 아산전에서 후반 18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소유한 공을 왼발 터닝슛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기록했다. 15라운드 안산전 득점까지 더해 최근 4경기에서 3골의 좋은 흐름이다.

허을은 올 시즌 단 6개의 유효슈팅으로 4골을 성공시키며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

여주고 있다. 득점뿐 아니라 3개의 도움을 올려 광주는 허을이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7경기 모두 승점 3점을 안았다.

지난 라운드 페널티킥과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을 기록한 헤이스도 주목된다. 헤이스는 시즌 8득점(1도움)으로 리그 최다득점 3위에 이름을 올려 선수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 이견희, 하승운, 마이키 등 추가 공격 자원이 출격 대기 중이다.

이번 상대 안양은 리그 4위(7승6무4패·승점 27)에 올라있다. 시즌 초반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지난 18라운드 경남FC에게 1-0 승리를 기록,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백성동, 김경중, 조나탄, 심동운 등 공격라인 또한 매서운 경기력을 자랑한다.

광주는 이번 안양과의 맞대결을 통해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도전한다.

광주는 안양과의 지난 원정 맞대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안양전 승리를 거둔다면 2022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동기부여가 상당한 만큼 적극적인 공세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U-23 대표팀에 차출된 핵심 선수 엄지성이 없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2경기 연속 3득점에 성공했다. 이번 경기는 정호연이 경고누적에서 벗어나 중원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또 안양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로 골문을 노려야 한다.

광주가 안양을 꺾고,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혜원 기자



허을



이소희-신승찬 8강 진출 배드민턴 선수 이소희(오른쪽)와 신승찬이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라운드에서 중국의 두웨이·리웨이메이를 상대하고 있다. 이소희와 신승찬은 중국을 세트스코어 2-0(21-14 21-14)으로 꺾고 8강전에 진출했다. /EPA-연합뉴스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축구 8강 진출

고재현 결승골 태국에 1-0 승
12일 D조 2위와 준결승 경합

황선홍호가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린 조영욱(서울)의 활약을 앞세워 태국을 제압하고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U-23 대표팀은 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파흐타코르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전반전 조영욱의 도움에 이은 고재현(대구)의 결승 골로 태국에 1-0으로 이겼다.

말레이시아와 1차전에서 4-1 승리에 이

어 베트남과 2차전 1-1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2승 1무를 기록, 1위(승점 7)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한국은 D조 2위와 오는 12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현재 2차전까지 치른 D조에서는 2위에 일본이 자리해 있어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승리가 확실했던 황선홍 감독은 공격진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를 줬다.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정상빈(그라스호퍼)을 벤치에 앉혀두고 장신 스트라이커 오세훈(시미즈)을 처음으로 선발 출격시켰다. 공격수 조영욱도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발로 나섰다.

오세훈이 최전방에, 조영욱과 흥현석

(LASK), 이강인(마요르카), 고재현이 2선에 섰다.

권혁규(김천), 김주성(김천), 이상민(충남 아산), 최준(부산)으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고동민(경남)이 썼다.

발 빠른 조영욱과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대구 팀 내 최다인 6골을 넣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 고재현이 전반전 태국 진영을 휘저으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갔다.

선제골도 조영욱과 고재현이 합작했다.

전반 35분 고재현이 조영욱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키퍼 다리 사이로 슈팅해 득점했다. 조영욱은 이로써 조별리그 전 경기에서

공격포인트(3골 1도움)를 기록했다.

한국은 후반전에도 조영욱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10분에는 이강인의 침투 패스를 받은 조영욱이 직접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아쉬움을 삼켰다.

앞선 2경기에서 후반전 막판 실점한 한국은 이번에도 기운이 36도에 달하는 무더위에 경기 막판 체력이 빠졌는지 전열이 흐트러지며 몇 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다.

후반 35분에는 아찔풀 킬리톱이 골 지역 왼쪽에서 때린 슈팅을 고동민이 겨우 막아냈다.

한국은 태국의 막판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고 8강행을 확정했다.

고재현은 경기 뒤 "쉬운 경기가 없는 것 같다. 매 경기 결승이라는 기분으로 준비했는데 8강에 오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공모 도체육회 사업비 확보 최다

전남도체육회가 '2022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의 2022년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공모에 대전, 경기, 경남과 함께 선정돼 9,090만원의 재원 확보에 성공했다. 9일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는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을 통해 학교나 스포츠클럽 등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엘리트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축구, 볼링, 배드민턴, 스키 등 4개이며 오는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된다.

축구는 U-12, U-15에 해당되는 20개팀, 500여명, 배드민턴은 U-12, U-15, U-18에서 125팀, 250여명, 볼링은 U-12, U-15, U-18에서 60개팀, 120여명이, 스키는 U-12, U-15에서 20개팀 60여명이 각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화 기자

전남 드래곤즈 새 사령탑 이장관 용인대 감독 선임



이장관

전남 드래곤즈는 제15대 사령탑으로 이장관 용인대 감독(47)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장관 선임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신하고 연구하는 지도자로 다수의 프로선수들을 배출한 대학축구계 최고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선수시절 통산 354경기를 뒀던 이장관 감독은 지난 1997년 부산 대우로얄즈에 입단, 2007년까지 348경기 4득점, 9도움을 올렸다.

지난 2011년 약팀으로 평가받던 용인대 감독으로 부임, 남다른 용병술로 강력한 공격축구를 펼쳐 용인대를 대학축구 최강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으로 권역대회를 우승하며 대학무대를 휩쓸었다.

이 감독은 "전남 드래곤즈가 저의 축구를 믿고 첫 프로 지휘봉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남의 모습이 저에게는 많은 동기부여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장관 감독은 선수단과 상봉례를 마친 뒤 오는 12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경남FC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른다. /조혜원 기자

KIA 소크라테스 5월 MVP 선정

팀 월간 '승률 1위' 큰힘

KIA 타이거즈 외야수 소크라테스가 5월 한 달간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선보이며 5월 월간 MVP로 최종 선정됐다.

소크라테스는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8표(56.3%), 팬 투표 34만76표 중 6만

4,748표(19%)로, 기움 안우진을 제치고 개인 첫 월간 MVP를 수상하게 됐다.

개막 초반 리그 적응에 힘겨운 모습을 보이며 부진했던 소크라테스는 5월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소크라테스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 경기(26경기)에 출전해 타율(0.415)과 안타(44개) 1위를 비롯해 타점(28점) 공동



소크라테스

5월)와 함께 공동 1위에 해당한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활약에 힘입어 5

월 월간 팀 승률 1위(0.692, 26경기 18승 8패)에 오르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뛰어들게 됐다.

5월 MVP로 선정된 소크라테스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75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구단 지정 병원인 서울화이트치과병원이 시상하는 5월 MVP에도 선정됐다. 시상식은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전에 앞서 열렸고, 서울화이트치과병원 하동욱 원장이 시상(상금 100만원)했다. /조혜원 기자